

학문은 현실 앞에 겸손해야 한다

한국 교회가 해방 후 지루한 과도기를 겪어가면서 그래도 인재 양성의 덕분에 수 많은 신학교와 신학자들을 가지게 되었다. 다른 학문 분야에 못지 않게 신학을 공부한 학자나 목회자가 늘어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면목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이 학자들의 말이나 글이라면 그것이 새로운 것이라는 한 가지 점 때문에 거의 그대로 통해져 왔다. 그래서 인재가 귀한 우리 나라 신학계에서 다소 과격한 사상을 피력해도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 들여졌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에 틀림없다.

지난 몇해 동안의 이러한 일을 훑어 보아도 토착화 문제를 중심한 단군 신화 문제, 1967년 신도 문제, 그리고 신의 죽음과 비속화 문제 등등 심심치 않을 정도로 외국 신학 사상이 우리 교회의 화제거리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요즘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실은 한국 교회의 현재나 장래 일을 결정하는 모임에서 발제강연을 하는 분들의 강연 내용이 너무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서구의 신학 사상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우리의 현실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는 일보다 오히려 남의 사상을 무턱대고 찬양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나머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는 데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외국 신학 사상을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서구적인 신학 용어로 표현한다면 몰라도 다른 나라의 학자들이 생각하는 내용과 용어를 무턱대고 우리의 현실에 뒤집어 써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언제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골고루 관찰하고 분석한 뒤에 좀 건설적인 입장에서 발제강연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YMCA에서 가진 중부 지방 지도자 회의에서는 이러한 무책임하고도 무성의한 발제강연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

무릇 학문은 현실 앞에 겸손해야 한다. 제아무리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참신한 외국 신학 사상을 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늘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고민과 애로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결국 외래 사치품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고민과 미련함에 동합하지 않는 신학은 가짜 박사 못지 않는 학자들의 허영의 산물인 동시에, 크리스천들의 침묵 속에서 던지는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대왕 국민학교에 미감아 문제는 여러 모로 우리에게 반성의 기회를 준다. 이 문제가 터지자 한결같이 학부형들이 무지하다느니 편견에 사로잡혔다느니 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그러나 한 차례 여기서 꼼꼼히 생각해 보면 자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 스스로가 서지 않고서 한낱 남의 일처럼, 설교처럼 떠드는 일이 얼마나 허황한 일인가를 뉘우치지 않을 수가 없다. 미국의 흑백 분쟁과 비교하는 신문 기사도 있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그것은 이론으로나 명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규모는 적으나마 우리의 편견을 저울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보기라고도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외형적인 명분이나 이론을 걷어치우고 한 인

간(아니 한 어린 학생이) 미감아라는 낙인이 찍혀서 교문 밖에 서서 울고 있는 광경을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고서 볼 수가 있었다냐 하는 사실 뿐이다.

이것은 값싼 감상주의가 아니고 쌀쌀한 현실이 한 어린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이 앞으로는 그 마음을 이즈러지게 해서 불행한 인간, 불행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뻔한 현실을 내다 보는 눈물이 아니고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미감아를 경원하고 박해하는 학부형들을 나무랄 필요도 없다. 다만 우리 각자가 내 자식을 그 자리에 던져 넣을 수 있겠느냐? 하는 냉혹한 자기 대결을 하고난 사람이라야만 이 미감아 문제에 대해서 무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쉽게 의분에 넘치는 어조로써 이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을 테스트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인도적인 양심의 결단을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